여수 적조 밀도 경보 수준
경남 전 해상은 경보 발령

여수시 돌산읍 해역에 경보 수준의 적조 현상이 나타나고 경남 전해상으로 적조 경보가 확산되는 등 적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여수수산사무소는 27일 "돌산읍 일부 해역에 적조 원인 생물인 코클로디니움 밀도가 경보 수준인 ㎖ 당 최고 600~1천800개체로 나타났다"며 "이 일대 양식장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여수수산사무소는 "지난달 말 적조가 처음 나타난 남면과 화정면 해역에는 저밀도 적조띠가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등 소강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내 전 해상으로도 적보경보가 확대 발령됐다. 이날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마산 잠도~진동만 일원, 통영 사량~추도·곤리~만지도, 남해 장항~노도·물건~미조 해상에 머물렀던 적조가 거제 장목 광포해상까지 확대됐다. 특히 거제 장목 광포해상에는 유해성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이 바닷물 ㎖ 당 900~4천500개체에 달해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일조량이 증가하면 가두리양식장 내 어류폐사 등 피해가 우려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일조량이 증가하고 바다수온이 오르면 적조의 밀도와 범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식어민들은 적조예찰 활동을 강화해 적조가 보이면 황토뿌리기 등 적조방제작업을 즉시 벌여 달라"고 부탁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2008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이용대 선수가 김중수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과 함께 27일 고향인 화순에 도착, 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금빛 윙크'에 화순이 행복했다

배드민턴 이용대 금의환향…군민들 열렬히 환호

천불천탑 운주사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의 고장 화순이 활짝 웃었다. 한미FTA와 쇠고기 수입, 유류·비료값 폭등으로 웃음 지을 날이 없었던 농민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한없이 즐거웠다.

금메달을 따는 순간 카메라를 향해 멋진 미소와 윙크를 보내며 '국민 남동생'으로 떠오른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 이용대(20·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선수가 27일 고향 화순에 돌아왔다.

27일 오후 1시30분 화순군청 앞 광장. 이용대 선수가 군청앞에 도착하자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함성소리가 터졌다. 학생들은 휴대전화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이용대 선수의 모습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고, 주민들은 "아이고 잘생겼네"를 연발하며 손이라도 잡아보기 위해 몸을 뻗었다.

광장은 500여명의 주민들로 꽉 들어찼고 자리를 미처 잡지 못한 주민들은 2~3층 건물로 올라가서 이 선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애썼다. 이 선수가 한번 웃으며 '금빛 윙크'를 할 때마다 '소녀팬'들은 행복한 비명소리를 질렀고, 손을 흔들 때마다 주민들은 "우리 아들"이라며 환호했다.

이날 환영식에서 이용대 선수와 김중수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이 전완준 화순군수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으며 군의회 의장 등 각계 기관 및 단체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전완준 군수는 "이용대 선수의 금메달로 화순군이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됐다"며 "이용대 선수의 이름을 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어 배드민턴 꿈나무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문애자(여·55)씨는 "올림픽을 보면서 잠시 시름을 놓았다"며 "우리 농촌에 많은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이 선수가 올림픽 기적을 일구었듯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용대 선수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화순에서 자란 화순 토박이다. 화순초교와 화순중, 화순실고를 졸업한 그는 초등 2학년 때 처음 라켓을 잡은 이후 올림픽 금메달까지 크고작은 대회의 상을 휩쓸어 '배드민턴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었다.

이용대 선수는 "국가는 물론 고향을 대표해 올림픽에 나가는 만큼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배드민턴을 지도해준 화순의 많은 은사님과 고향 팬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화순을 더욱 빛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군민들에게 인사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이용대·주현정·김온아 '자랑스런 전남인상'

대한민국을 감동과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을 획득한 화순 출신 한국 배드민턴의 얼짱 이용대(20) 선수가 자랑스런 전남인상을 수상하고 전남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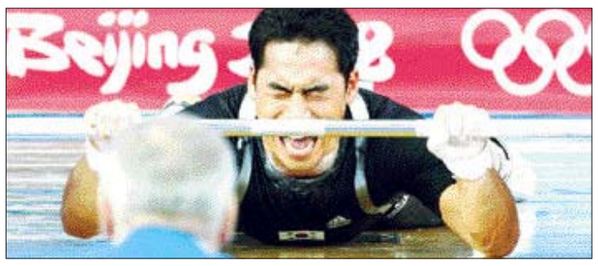
또한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 주인공인 주현정(26·곡성) 선수와 여자 핸드볼 동메달 김온아(20·무안) 선수도 자랑스런 전남인상을 수상했다. /채희종기자 chae@

퇴임 교원 훈·포장 수여
광주 247명·전남 356명

8월 말 퇴임하는 광주·전남지역 장기근속 교원들에게 훈·포장이 수여된다. <명단 16면>

광주시교육청은 28일 오전 10시30분 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8월 퇴임 교원 247명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과 합동 퇴임식을 갖는다.

전남도교육청은 29일 오후 3시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356명에 대해 훈·포장 전수식을 갖는다. /정상필기자 camus@



이배영, 명예 금메달 받는다

'부상 투혼' 감동…모교 조선대서 수여

베이징 올림픽 남자역도 69kg급 용상에서 종아리 경련을 일으키며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조선대 출신 이배영(29·체육학부·사진)이 조선대로부터 명예 금메달을 받는다.

조선대는 27일 "이번 올림픽에서 국민들에게 금메달 대신 감동을 준 모교 출신 이배영 선수에게 명예 금메달을 수여키로 했다"며 "메달의 앞 부분은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과 똑같이 제작하고 뒷면은 조선대의 정성과 뜻이 담긴 문구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배영은 역도 인상 부문에서 2위를 기록,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금메달을 바라봤으나 인상 184kg 1차 시기에서 종아리 경련을 일으키며 부상당했다. 3차 시기에서 이배영은 186kg 짜리 바벨을 어깨까지 올리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끝까지 바벨을 놓지않았던 이배영의 부상 투혼을 놓고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현재 네티즌을 중심으로 이배영에게 금메달을 선사하자는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운영하는 '베이징 2008' 응원방에 개설된 '이배영 선수에게 순금 괜던트'라는 제목의 게시판에는 서명목표 500명을 훌쩍 넘어 27일 오후 5시 현재 1만5천772명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 다음의 토론 사이트 '아고라'에도 '모금 청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배영은 27일 재개된 프로야구 LG-KIA의 잠실경기 시구를 맡아 관중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조선대측은 메달 제작에 걸리는 시간과 이배영의 개인 일정을 고려해 이배영을 조선대로 초청,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필기자 ca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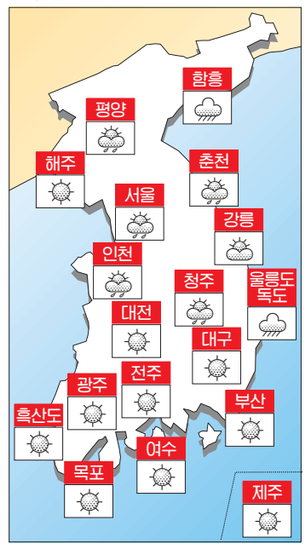
"아직은 더워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8월 28일 (음 7월 28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맑음	19~30℃
목 포	맑음	20~28℃
여 수	구름 조금	21~27℃
완 도	구름 조금	19~30℃
구 례	구름 조금	16~31℃
해 남	구름 조금	18~29℃
장 흥	구름 조금	18~29℃
고 흥	구름 조금	18~29℃
순 천	구름 조금	16~30℃
영 광	맑음	18~29℃
진 도	구름 조금	17~29℃
전 주	구름 조금	18~30℃
남 원	구름 조금	16~30℃
흑산도	맑음	20~25℃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목 포 밀물 00:03 12:03 썰물 05:41 17:35
여 수 밀물 17:15 19:52 썰물 01:24 13:15

▲해뜸 06:02 ▲해짐 19:05 ▲달뜸 02:45 ▲달짐 17:3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9(금)	30(토)	31(일)	9/1(월)	2(화)	3(수)
날 씨						
최저/최고	20/30	21/31	22/30	22/28	22/28	21/29

헌혈 릴레이 캠페인 한전 전남사업본부(본부장 김귀중)는 27일부터 한달 동안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원장 정하광)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25개 사업소를 순회하며 노사 한마음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한전 전남본부 25개 사업소 320명의 직원이 헌혈에 참여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장균 검출 약수터 1개월 방치

광주시, 부당 업무 49건 적발

광주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가 무등산 약수터에서 총대장균군 등 유해균이 검출됐는데도 사용금지 경고문 등을 부착하지 않고 1개월 가량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육시설 관리사무소는 무등경기장 담장이 노후화돼 붕괴위험이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광주시는 27일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 등 8개 기관·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감사결과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49건의 부당 업무처리를 적발, 시정·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는 평두메 등 공원시설지구 내 약수터 7곳에서 지난 6월2일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식용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5일까지 음용을 금지하는 경고문 등을 부착하지 않았다.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평두메, 늦재, 덕산샘, 너덜경, 돌샘, 중머리재, 구 증심사 관리소 약수터 등 7곳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